

MLB, 특허청 지재권 보호 노력에 감사패 전달

- 특허청,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성공 개최 위해 지재권 보호 활동 앞장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 16.(화)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로부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24.3.20.~21)'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월 MLB로부터 2024시즌 개막경기 한국 개최에 따른 상표권 보호요청을 받고, MLB 개막경기의 국내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과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상표경찰은 '24.2월에 서울 동대문 및 남대문 일대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4.3월에는 온라인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게시글을 삭제(366건) 조치했다.

또한 서울시리즈 경기 중에는 현장 일원에서 위조상품 현장 단속, 지식재산 보호 홍보부스 운영, 거리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에서의 MLB와 같은 외국 상표권에 대한 보호활동은 케이(K)-브랜드가 해외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서 “국내에서 지식재산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5959)
		담당자	서기관	신훈식 (042-481-8315)